

# 매년 명절마다 되풀이 되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논란

마트 층 “직원도 명절 쇠야”…소상공인 “골목상권 · 전통시장 피해”

올해 설은 토요일, 다음 날인 일요일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다. 대형마트에서는 근무자들이 명절에 쉴 수 있도록 휴업일을 토요일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명절때면 반복되고 있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논란이 올해도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8일 광주 5개 지자체에 따르면 롯데마트 상무점과 동광주 흠플러스에서 이번 설 명절과 관련해 의무휴업일을 변경해달라고 지자체에 신청했다.

올해 1월 ‘의무휴업일’(둘째 · 넷째 일요일)은 12일과 26일이다.

대형마트들은 설 명절인 25일이 토요일인 만큼 26일과 의무휴업일을 바꿔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일선 지자체에서는 의무휴업일 변경은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동광주 흠플러스가 있는 광주 북구는 의무 휴업일이 변경될 경우 혼란이 생길 수도 있다면서 이를 거부했다. 서구는 아직 관련 내용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의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직원들도 명절에 차례를 지내고 가족들도 만나면 좋아 명절날 쉬게 해 주려고 의무휴업일 변경 요청을 했었다”면서 “구청뿐만 아니라 광주시에서 변경하지 않을 거란 답변에 올해는 신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지자체 관계자는 “의무휴무일을 변경하겠다는 요청이 명절에 들어오고 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한번 바꾸게 되면 선례가 되고 나중에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만큼 다른 지자체에서도 의무휴무일을 변경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소상인살리기광주네트워크 관계자는 “광주 5개 구가 의무휴업일을 맞췄던 건 특정 구에 속한 대형마트가 날짜를 변경할 경우 의무휴업을 하는 효과가 사라지는 등의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며 “근로자들의 휴식권 때문에 요청한다는건 앞뒤가 안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형마트가 휴업일을 변경할 경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피해 볼 수밖에 없다”며 “꼭 명절이 아니더라도 일상적으로 대규모 독과점을 규제하는 측면에서 압법 체재가 마련됐기 때문에 명절이라고 봐주거나 용인되는 건 아니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명절 의무휴업일 변경 논란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이어지고 있다.

당시 광산구는 ‘대규모 점포 등의 설날 근로자 휴식권 보장을 위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견 제시에 따라 의무휴업일을 예정된 22일에서 28일로 한시적으로 변경한다’고 고시했다.

이에 광산구 내 대규모 점포 4곳과 준대규모점포 2곳의 의무휴업일이 변경되게 됐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은 “설날 전 대목을 노린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변경을 지자체가 나서서 도왔다”고 반발했고, 결국 이 고시는 취소됐다.

이후 이번 설까지 명절만 되면 대형마트 층은 직원들이 쉴 수 있게 의무휴업일을 변경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지자체에) 보냈다.

임형택 기자



스마트폰 끄고펜을 들다 지난 7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열린 ‘제5회 이화 에크리’에 참가한 학생들이 글을 쓰고 있다. 참가 학생들은 당일 현장에서 약 3시간 동안 스마트폰, 노트북 등 휴대용 전자기기의 도움 없이 서평 또는 기행문을 자필로 작성해야 한다.

‘미분양 택지사면 승진 유리’  
공무원에 판매 독려  
광양시 ‘부적절’

광양시가 공무원들에게 근무성적평정을 미끼로 분양이 저조한 택지에 대한 판매를 독려한 사실이 전남도 감사결과 드러났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광양시는 지난 2017년 5월 당시 개발 중인 광영·의암, 와우지구 택지 분양 촉진을 위해 광양시 직원들로 하여금 택지분양에 적극 나서도록 ‘광영·의암,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택지 분양 인센티브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

이어 직원들이 택지판매 실적을 집계해 그해 하반기(10월) 근무성적평정 시 0.5점에서 2.0점까지 실적가점을 부여한다고 직원들에게 공지했다.

결국 광양시 공무원들은 본인이 직접 택지를 매입하거나 주변 지인들에게 택지를 판매하고, 그 실적을 택지조성과제에 제출했다.

집계된 택지판매 실적은 2만 2768㎡ 면적에 금액은 136억 7000만원에 이른다.

하지만 공직사회 내부에서 업무와 무관한 택지 구입을 근무성적에 반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발이 제기됐다.

광양시 한 직원은 “공무원들의 택지 매입 실적을 균평 가점으로 인정하면 결국 돈이 많은 공무원이 택지를 많이 매입해 빨리 승진하게 되는 걸”이라며 “공직사회내 위화감과 상대적 밸류감을 발생시켰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직원은 “광양시 직원들이 택지 판매에 대한 부담으로 공무원 본연의 업무에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며 “특히 승진이 얼마 남지 않은 공무원들은 업무에 전념해 추진 역량이나 실적 등으로 정당한 평가를 통해 승진하기보다는 택지 판매를 통해 승진하려는 그릇된 인사문화를 야기했다”고 비판했다.

결국 이 같은 반발로 광양시는 택지판매 실적을 근무성적 평정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전남도는 최근 종합감사에서 택지 분양 인센티브 추진 계획을 부적정 업무로 보고 ‘주의’ 조치를 했다.

## ● 단신 ●

광주서 심야 편의점 강도 발생…경찰 추적 중

8일 오전 2시39분쯤 광주 광산구 신창동 한 편의점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남성이 헝겊로 종업원을 위협하고 계산대에 든 현금 30만 원 가량을 빼앗아 달아났다.

종업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마스크를 쓴 이 남성이 범행을 저지른 뒤 택시를 타고 도주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와 택시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20대로 추정되는 범인의 뒤를쫓고 있다.

경찰차 들이받고 도주한 덤프트럭…필로폰 투약

경찰의 검문 요구에 불응하고 순찰차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덤프트럭 운전자가 붙잡혔다. 해당 운전자는 미약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의 행위로 체포된 50대 트럭 운전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7일 오후 6시30분쯤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서 25톤 트럭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내고, 이후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검문 요구에도 불응하고 순찰차를 치고 달아난 혐의였다.

A씨는 약 20여분간 도주하다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의 한 도로에서 정차 중이던 승용차와 또 다른 순찰차 등을 잇따라 들이 받은 뒤 도로 옆 전봇대와 충돌한 뒤에 멈췄다. 도로 한복판에서 벌어진 소동으로 순찰차 범퍼가 파손되는 등의 피해가 있었으나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 죽정 결과 A씨는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나왔고,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약 간이검사에서도 양성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달리던 차량서 불…전소 불구 인명피해 없어

8일 오전 7시2분께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서울방향 6번 국도를 달리던 SUV차량에서 불이 났다.

운전자 A씨(65·여)는 차량 내부에서 타는 냄새가 나자 갓길에 차를 정차한 뒤 대피해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은 전소됐다.

불은 1시간20분만에 꺼졌지만 화재 여파로 출근길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다.

소방당국은 운전석에서 불꽃과 연기가 났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계속 운다” 생후 2개월 아들 폭행한 20대 구속

대전대덕경찰서는 생후 2개월 아들을 폭행해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위반 중상해)로 A씨(22)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아내도 이동복지법상 방임 학대 혐의로 경찰에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대덕구 한 모텔에서 2개월 된 아들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들이 의식을 잃자 다음날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측은 지난해 11월 7일 아이를 치료하던 중 이동학대 정황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아내가 모텔을 나간 뒤 아이가 계속해서 울자 학대를 했다.

현재까지 아기는 두 달 넘게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증흥건설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